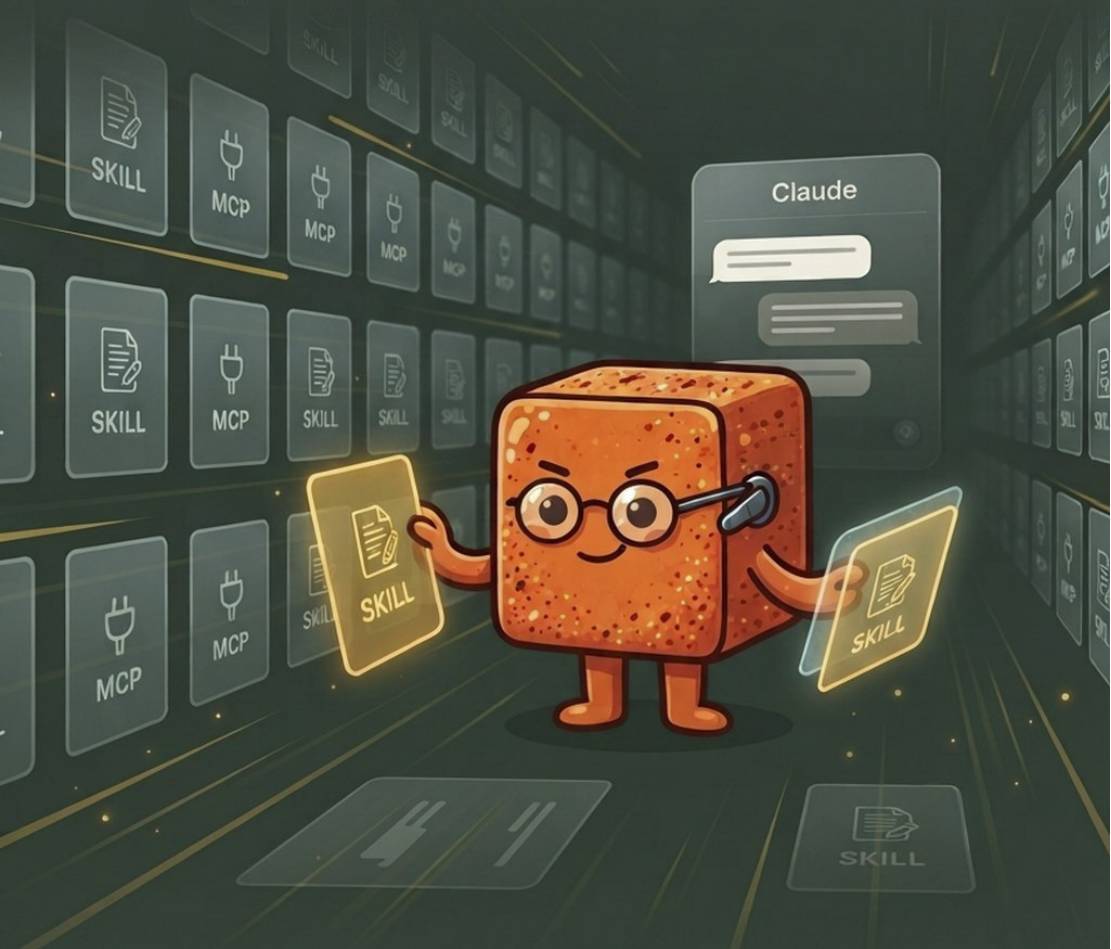


Claude로 시작하는
Skill, MCP

깔기 전에, 맛보세요

AI는 매일 쓰는데 스킬·MCP는 뭘 깔아야 할지 모르는
당신을 위한 30일 도구 시식법



들어가며

! 이 PDF는 『깎기 전에, 맛보세요』의 무료 샘플입니다. 들어가며와 Day 1~3을 정식판 그대로 담았습니다. Day 3이 끝나면 내 채널 말투로 뽑은 쇼츠 대본 한 편이 손에 남아요.

이 책이 서 있는 자리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영상이 자주 뜹니다.

"제가 쓰는 스킬 그대로 드립니다." "이 MCP 하나면 끝납니다. 링크는 댓글에."

좋은 자료들입니다. 남이 몇 달 걸려 깎아 놓은 것을 몇 분 만에 받아 쓰는 거니까요. 저도 그런 자료로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도 남이 만든 스킬을 깎아 봅니다.

그런데 며칠 써 보면 대개 이런 순간이 옵니다.

"좋은데, 내 일이라는 조금 다른데?"

당연합니다. 남의 레시피는 **남의 주방 기준**이거든요. 같은 "회의록 정리"라도 팀장님이 원하는 양식이 다르고, 같은 "쇼츠 대본"이라도 채널 말투가 다릅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그대로 쓰면	고쳐 쓸 줄 알면
결과가 어딘가 남의 것 같다	내 양식, 내 말투로 나온다
안 맞으면 다른 걸 또 찾는다	어디를 고칠지 안다
만든 사람이 멈추면 같이 멈춘다	내가 이어서 쓴다
다음 도구도 남에게 물어야 한다	다음 도구는 내가 고른다

이 책이 30일 동안 기르려는 건 오른쪽입니다. **고르고, 고쳐 쓰고, 없으면 만들고, 안 쓰면 끄는 힘**이요.

유료 강의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든 안 사든, 받은 걸 **내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어야** 그 돈이 값을 합니다.

AI 도구는 내년에도 바뀝니다. 이름도, 화면도, 잘나가는 서비스도요. 그때 다시 "요즘 뭐가 좋대?"를 검색하는 사람과, **자기 문제에 맞는 걸 골라 만들 줄 아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추천 목록이 아니라, 목록을 거르는 눈. 남의 레시피로 시작하되, 우리 집 주방에 맞게 고쳐 쓴다.

시작하기 전에 — 딱 세 가지만 확인할게요

준비물부터 볼게요. 세 개뿐입니다.

준비물	확인 방법	없으면?
Claude 앱	데스크톱 앱 또는 웹 (claude.ai)	어느 쪽이든 됩니다. 이 책은 데스크톱 화면 기준
Claude 요금제	유료 Pro 이상 권장	스킬은 무료 요금제에서도 쓸 수 있지만, 플러그인·예약 작업 같은 일부 기능은 유료입니다
실습 자료 폴더	책과 함께 받은 압축 파일	아래 안내를 봐 주세요

실습 자료 내려받기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라 **같이 해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실습 파일을 따로 준비했어요.

- 1 함께 받은 압축 파일 **칼기전에맛보세요_무료샘플_전체.zip** 을 풉니다.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 **압축 풀기** 를 누르면 돼요(맥은 두 번 누르기).
- 2 압축을 푼 폴더를 **바탕화면**에 둡니다. 위치가 헛갈리면 실습이 꼬이거든요.
- 3 폴더 이름은 그대로 두세요. 본문에서 이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바탕화면

- └─ 무료샘플_실습자료
 - └─ Day01_반복신호찾기
 - └─ Day02_주문서쓰기
 - └─ Day03_첫스킬

! 화면 생김새는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버튼 위치가 책과 다르면 **글자를 찾으세요**. 이름은 잘 안 바뀝니다.

✦ **채팅과 Cowork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예전 Claude 앱에는 대화하는 "채팅"과 일을 맡기는 "Cowork"가 따로 있었어요. 이제는 **채팅 하나**입니다. 부탁을 하면 Claude가 답만 할지, 일을 맡아 할지 알아서 정합니다. 이 책의 실습은 모두 채팅 화면에서 합니다. 책에서 "새 대화를 엽니다"라고 하면 왼쪽 메뉴 맨 위의 **새로 생성**을 누르면 됩니다. 스킬·커넥터·플러그인은 **사용자 지정**에, 예약 작업은 왼쪽 메뉴 **예약됨**에 있어요. 개발자용 **Code**만 따로 남았습니다. 업데이트는 Pro·Max 요금제부터 차례로 퍼집니다. 화면에 아직 "Cowork" 탭이 보이면, 플러그인과 예약 작업은 그 탭 쪽에서 찾으세요.

실습 파일 여는 법

실습 파일은 모두 이름이 **.txt**로 끝납니다. **글자만 든 문서**라서 파일을 두 번 누르면 메모장(맥은 텍스트 편집기)이 바로 열립니다. 워드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은 필요 없어요.

혹시 다른 프로그램이 열리면,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윈도우는 **연결 프로그램** → **메모장**, 맥은 **다음으로 열기** → **텍스트 편집기**를 고르면 됩니다.

열어 보면 표가 삐뚤빼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칸 모양은 신경 쓰지 말고 **내용만 채우면 됩니다**.

지시문은 파일로도 드립니다

이 책에는 **복사해서 쓰는 지시문**이 Day마다 나옵니다. 책에서 굵게 복사하면 줄이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Day 폴더마다 **Day01_지시문.txt** 같은 이름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 복사하는 편이 편합니다.

30일치를 한꺼번에 모은 **부록: 지시문 모음**은 정식판 맨 뒤에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 여섯 개

모르고 넘어가면 중간에 막히는 말만 골랐습니다.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합니다.

말	쉬운 뜻
스킬	AI에게 주는 업무 매뉴얼. 이 책에서는 "레시피 카드"라고 부릅니다
MCP · 커넥터	AI를 내 파일이나 다른 서비스와 잇는 연결선. "쪽문"이라고 부릅니다
저장소	인터넷에 공개된 파일 보관함 한 칸. 남이 만든 스킬이 여기 있습니다
압축 파일 (ZIP)	여러 파일을 하나로 묶은 파일. 풀어서 씁니다
터미널	검은 화면에 글자 명령을 직접 치는 프로그램. 이 책에서는 4주차에 딱 한 번 씁니다
토큰	AI가 글을 읽는 단위. 한글 몇 글자가 1토큰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 결과가 책과 달라도 정상입니다

같은 지시문을 넣어도 Claude는 매번 조금씩 다른 문장을 씁니다. 사람도 같은 얘기를 두 번 똑같이 하진 않잖아요.

판단 기준은 이렇게 잡아 주세요.

- 문장 표현이 다르다 → **정상**
- 형식(표인지, 몇 줄인지)과 뽑아낸 내용이 비슷하다 → **성공**
- 이 책에 나온 스킬·저장소의 숫자와 날짜가 다르다 → **정상**. 2026년 9월 확인 기준이고, 그사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30일 동안 한 사람과 같이 갑니다.

한도운 씨. 마케팅 대행사 바른기획의 4년차 직장인입니다. 퇴근하면 생활정보 쇼츠 채널 **혼살 30초**를 운영해요. 구독자는 2천 명쯤 됩니다. AI는 매일 씁니다. 추천 글을 보고 스킬이며 MCP며 이것저것 깔아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켜져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입버릇은 이겁니다. **"이거 자동으로 안 되나?"**

그리고 옆자리에 다섯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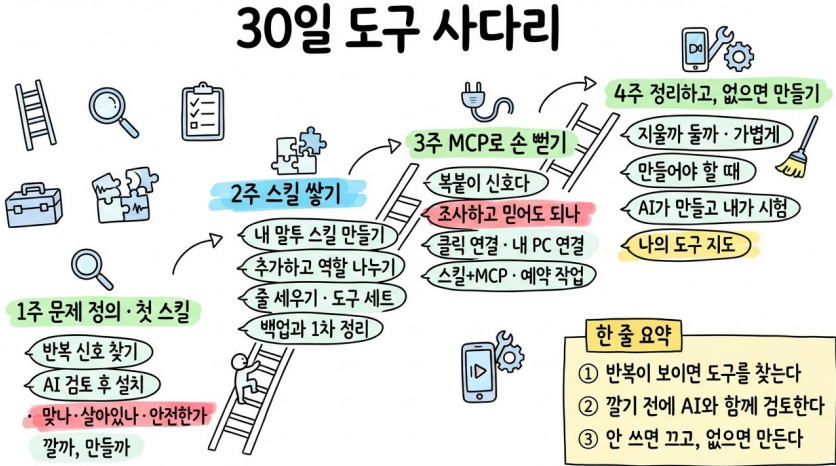
도운 씨 이야기만 따라가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쇼츠 안 하는데?"
그래서 Day마다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한 명씩 나옵니다. 같은 날 배운 것을 **자기 일에 대 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는 일	자동화하고 싶은 것
오하늘	입사 6개월 차 신입사원	매주 회의 녹음을 한 장 보고서로
김만석	10년 차 식당 사장님	영수증을 매입·매출로 정리
윤채원	1인 창업 디자이너	고객 피드백을 수정 목록으로
정민수	학원 강사	학생 답안 첨삭과 문제 만들기
배수연	쇼핑몰 운영자	상세페이지 문구와 문의 응대

지금 이 표를 훑어보고, **자기와 가장 닮은 사람에 표시해 두세요.** 30일 동안 그 사람이 당신의 길잡이가 됩니다.

! 등장인물과 회사·채널 이름은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실제와 관계없습니다.

도운 씨가 30일 동안 오를 길은 사다리 한 장으로 그려 두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사다리가 놓여 있고, 층마다 한 주씩 올라섭니다. 1주에는 문제를 정의하고 첫 스킬을 고르고, 2주에는 스킬을 쌓아요. 3주에는 MCP로 손을 뺐고, 4주에는 정리한 뒤 없는 건 직접 만듭니다. 오른쪽 아래 상자에는 이 책의 한 줄 요약 세 개가 적혀 있어요. 반복이 보이면 도구를 찾고, 깔기 전에 AI와 함께 검토하고, 안 쓰면 끄고 없으면 만든다.

첫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30일 동안 하는 모든 단계는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남이 만든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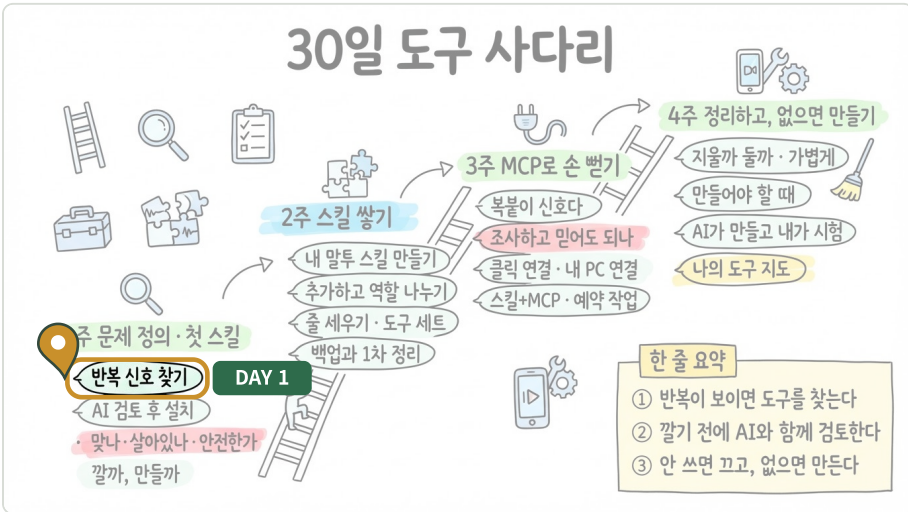
그래서 이 책에는 "이걸 까세요"라는 말보다 "**이건 왜 까나요?**"라는 질문이 더 자주 나옵니다.

도구는 30일 뒤에 몇 개 남지 않을 겁니다. 판단은 남습니다.

DAY 1

같은 말을 세 번 했다면, 그게 신호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사다리의 맨 아래 칸, "반복 신호 찾기"입니다. 도구 얘기는 아직 안 합니다. 오늘은 내 일주일부터 들여다봐요.



① 오늘의 상황

오전 9시 반. 도윤 씨가 주간 회의 녹음 파일을 엽니다. 1시간짜리를 들으며 보고서를 씁니다. 지난주에도 했고, 그 전 주에도 했어요.

점심 먹고는 거래처 메일 세 통. 인사말은 늘 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밤 10시. 쇼츠 대본을 쓰려고 Claude를 엽니다. 메모장에서 채널 소개를 복사해 옵니다. 붙여넣기. 엔터.

"이거 자동으로 안 되나?"

오늘만 네 번째 한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뭘 자동으로 하고 싶은지 물으면, 도운 씨도 잘 모릅니다.

② 오늘의 미션

지난 일주일에서 자동화 후보 세 개를 뽑고, 각각에 맞는 도구 종류를 붙인다.

③ 개념 먼저 — 반복에도 모양이 있습니다

"자동화할 일을 찾아라."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 보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반복되는 일은 너무 익숙해서 **일로 안 보이거든요.**

양치질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두 번씩 하는데, "오늘 한 일"을 적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적습니다.

그래서 일을 찾지 말고 **신호를 찾습니다.** 반복에는 모양이 있고, 모양마다 맞는 도구가 따로 있어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필요한 도구	주방으로 치면
AI에게 같은 설명을 또 한다	스킬	레시피 카드
자료를 복사해서 AI 창에 붙인다	MCP	창고로 내는 쪽문
매주 같은 때 같은 일을 한다	예약 작업	새벽 자동 발주

첫 번째 신호는 도운 씨의 채널 소개입니다. 카드로 적어 두면 끝날 레시피를 매일 입으로 불러 주는 셈이에요.

두 번째 신호는 회의 녹음입니다. 녹음 파일을 열고, 내용을 훑기고, 결과를 다시 붙여넣죠. 창고로 쪽문을 하나 내면 보조가 직접 가져옵니다.

도운 씨에게는 이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쇼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인스타그램, 틱톡, 스레드에 또 올리거든요. 제목과 해시태그를 앱마다 손으로 고치느라 업로드에만 30분이 갑니다. 이 "복사·붙여넣기가 보이면 연결을 떠올려라"는 기준은 이미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기도 해요.

세 번째 신호는 달력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9시 반의 보고서처럼요. 예약 작업은 정해 둔 시각에 Claude가 알아서 일을 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 오늘은 도구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신호만 알아보면** 도구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래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반복 업무는 겉모습이 제각각이지만, 모양은 여덟 가지 정도로 모입니다.

- 쌓이는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
- 긴 것을 짧게 요약해 보고하는 일
- 피드백을 받아 수정을 반복하는 일
- 정해진 양식의 문서를 반복 작성하는 일
- 외부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일
- 문의와 소통에 응대하는 일
- 한 번 만든 콘텐츠를 여러 곳에 맞게 바꾸는 일
- 숫자를 모아 계산하고 분석하는 일

식당 사장님의 영수증 정리는 첫 번째고, 신입사원의 회의록은 두 번째예요. 도운 씨의 쇼츠 대본은 네 번째와 일곱 번째에 한 발씩 걸쳐 있습니다. 목록에서 내

일과 닮은 모양을 찾으면 됩니다.

④ 따라 하기

1단계 진단표 열기

실습 자료의 반복신호_진단표.txt 를 메모장으로 엽니다. 칸은 세 개예요. 무슨 일인지, 얼마나 자주인지, 어떤 신호인지. 어떻게 채우는지 감이 안 오면 같은 폴더의 도윤의_일주일_예시.txt 를 먼저 열어 보세요. 도윤 씨가 채운 진단표입니다.

2단계 Claude에게 인터뷰받기

빈칸을 혼자 채우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Claude에게 **질문을 해 달라고** 합니다. 새 대화를 열고 아래 ⑤의 **(1) 일주일 인터뷰** 지시문을 넣으세요.

그림 1-1 일주일 인터뷰

Claude가 질문을 하나씩 던집니다



나

제 일주일을 함께 돌아보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해 주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 질문은 한 번에 하나만)

Claude

첫 질문입니다. 월요일 아침, 눈을 뜬 뒤부터
첫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나

출근하면 메일부터 봐요. 인사말은 매번 붙여넣어요. 하루 3~5통.

Claude

반복 후보로 적어 두겠습니다.
메일 답장을 마친 뒤에는 보통 어떤 일을 하시나요?

나

주간 회의 녹음 듣고 한 장짜리 보고서를 써요. 매주 월요일.

Claude

그 보고서는 매주 같은 양식으로 쓰시나요?

Claude가 월요일 아침부터 차례로 묻습니다. 질문 하나에 답하면 다음 질문이 이어져요.

답은 짧게 해도 됩니다. "회의 녹음 듣고 보고서 씀. 매주." 모르는 건 "그때그때 달라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해도 됩니다. 제 인터뷰는 열세 번쯤 오겠습니다. 답할 때마다 "반복 후보로 적어 두겠습니다" 한 줄이 붙고 다음 질문이 왔어요. "끝"이라고 하자 회사 일과 개인 일을 나눈 표가 나왔고요.

3단계 신호 붙이기

인터뷰가 끝나면 아래 ⑤의 **(2) 신호 분류** 지시문을 넣습니다. Claude가 일마다 세 신호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표로 붙여 줍니다.

신호가 두 개 겹치는 일도 있습니다. 회의 녹음 보고서는 "복사·붙여넣기"이면서 "매주 같은 때"죠. 정상이에요.

4단계 후보 세 개 고르기

전부 할 수는 없으니 세 개만 고릅니다. 아래 ⑤의 **(3) 우선순위** 지시문을 쓰면 Claude가 후보를 추려 줍니다.

Claude는 이렇게 골랐습니다. 쇼츠 한 편 제작, 다른 플랫폼 재업로드, 그리고 광고 성과 엑셀 입력. 셋째를 고른 이유가 그럴듯했어요. "손으로 옮기다 틀리면 거래처에 잘못된 성과가 전달될 수 있어 실수 비용이 가장 큼니다." 회의 보고서는 "아깝게 네 번째"였고요.

도운 씨는 셋째를 회의 보고서로 바꿨습니다. 매주 1시간이 확실히 들어가는 쪽이 더 아팠거든요. **Claude의 추천은 참고입니다. 고르는 건 당신이에요.**

후보	신호
쇼츠 대본	같은 설명 반복 + 복사·붙여넣기
네 곳에 올리기	복사·붙여넣기
회의 녹음 보고서	복사·붙여넣기 + 매주 같은 때

대본은 "만드는 일"이고, 업로드는 "옮기는 일"이에요. 만드는 일은 레시피 카드로 풀고, 옮기는 일은 쪽문으로 풀니다. 대본은 이번 주에 바로 손대고, 업로드는 3주차에 제대로 잡습니다.

5단계 진단표 저장하기

결과 표를 마우스로 끌어 선택해 복사하고, 진단표 파일에 붙여 넣은 뒤 **파일** → **저장** 을 누릅니다. 이 표는 30일 내내 쓰고, 특히 Day 29에 다른 일로 자동화를 넓힐 때 다시 꺼내요.

⑤ 복사해서 쓰는 지시문

! 아래 지시문은 실습 자료의 Day01_지시문.txt 파일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책에서 굵게 복사하면 줄이 깨질 수 있으니 파일에서 복사하세요. 30일치를 모아 본 것은 책 맨 뒤의 **부록: 지시문 모음**에 있습니다.

(1) 일주일 인터뷰

제 일주일을 함께 돌아보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해 주세요.

- 월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시간 순서로 질문해 주세요.
- 한 번에 질문은 하나만 해 주세요.
- 제가 하는 일 중 "반복되는 것"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 회사 일과 개인 일(부업, 취미 포함)을 모두 물어봐 주세요.
- 제가 "끝"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온 일을 목록으로 정리해 주세요.

(2) 신호 분류

방금 정리한 일 목록을 아래 세 신호로 분류해 주세요.

1. 같은 설명 반복: AI나 사람에게 같은 설명을 매번 다시 한다
2. 복사·붙여넣기: 다른 곳의 자료를 옮겨 오고, 결과를 다시 옮긴다
3. 정해진 때 반복: 매일·매주 같은 때에 같은 일을 한다

표로 주세요. 칸은 "일 / 얼마나 자주 / 해당 신호"입니다.
신호가 여러 개면 모두 적어 주세요. 해당하는 신호가 없으면 비워 두세요.

(3) 우선순위

위 표에서 자동화 후보 세 개만 골라 주세요.
기준은 "자주 한다 / 할 때마다 귀찮다 / 실수하면 곤란하다"입니다.
후보마다 고른 이유를 한 줄로 적어 주세요.

⑥ 오늘의 응용

오하늘 씨의 경우 — 입사 6개월 차 신입사원

인터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건 1시간짜리 회의 녹음을 듣고 한 장짜리 보고서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엔 신호가 둘 겹칩니다. 녹음을 듣고 내용을 옮겨 적으니 복사·붙여넣기고, 매주 같은 요일이니 정해진 때 반복이에요.

두 번째 후보는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팀에서만 쓰는 줄임말을 AI에게 매번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같은 설명 반복입니다.

! 신호가 두 개 겹치는 일은 나중에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오하늘 씨의 1순위가 그래서 회의 보고서가 됐어요.

안 될 때

증상	원인	해결
질문이 한꺼번에 열 개씩 와요	지시문의 "하나만"이 빠짐	"질문은 한 번에 하나만" 문장을 다시 넣기
반복 업무가 안 떠올라요	익숙해서 일로 안 보임	오늘 이야기의 여덟 가지 모양을 Claude에게 보여 주고 "이 중 제게 해당하는 게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기
후보가 전부 회사 일이에요	개인 일을 빼고 답함	부업·집안일도 넣어 인터뷰를 한 번 더

오늘의 실습 자료

Day01_반복신호찾기

├─ 반복신호_진단표.txt

├─ 도윤의_일주일_예시.txt

└─ Day01_지시문.t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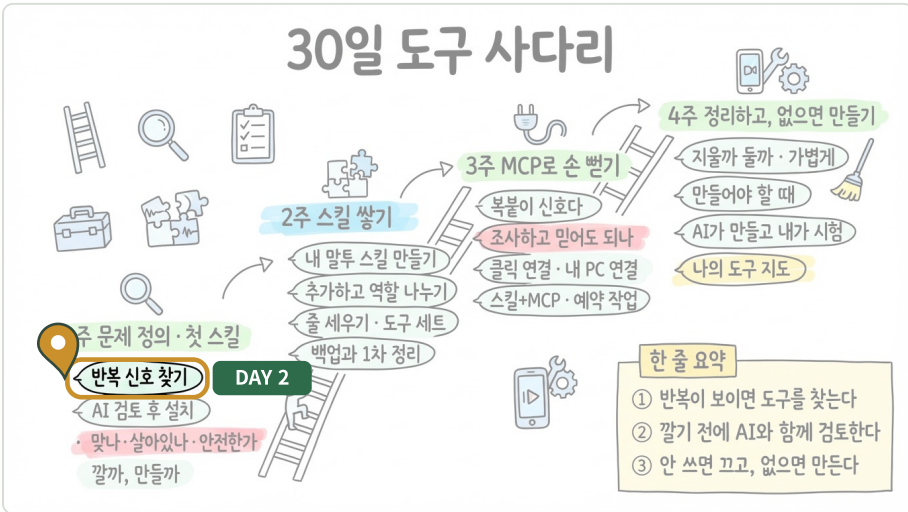
후보 세 개가 생겼습니다. 그중 도윤 씨는 쇼츠 대본을 먼저 잡기로 했어요. 제일 귀찮고, 제일 자주 하니까요.

그런데 "쇼츠 대본 자동화"라는 말, 조금 뭉툭하지 않나요? 내일은 이것 뽕족하게 깎습니다.

DAY 2

문제를 주문서 한 장으로 쓰기

지도에서 보면 아직 첫 칸, "반복 신호 찾기"의 둘째 날입니다. 어제 찾은 후보 하나를 오늘 뽕족하게 짚아요.



① 오늘의 상황

도운 씨가 Claude 창에 씁니다.

"쇼츠 대본 자동화하고 싶어. 도와줘."

답이 금방 옵니다. 길고, 친절하고, 성실합니다. 대본 구조 짜는 법, 혹(첫 몇 초에 시선을 붙잡는 한마디) 쓰는 요령, 편집 프로그램 추천까지 들어 있어요.

다 읽고 나서 도운 씨가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도운 씨 얘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② 오늘의 미션

자동화 후보 하나를 "입력 → 결과 → 기준" 한 문장으로 쓰고, 매번 붙여넣던 설명을 파일 하나로 정리한다.

③ 개념 먼저 — 문제는 주문서처럼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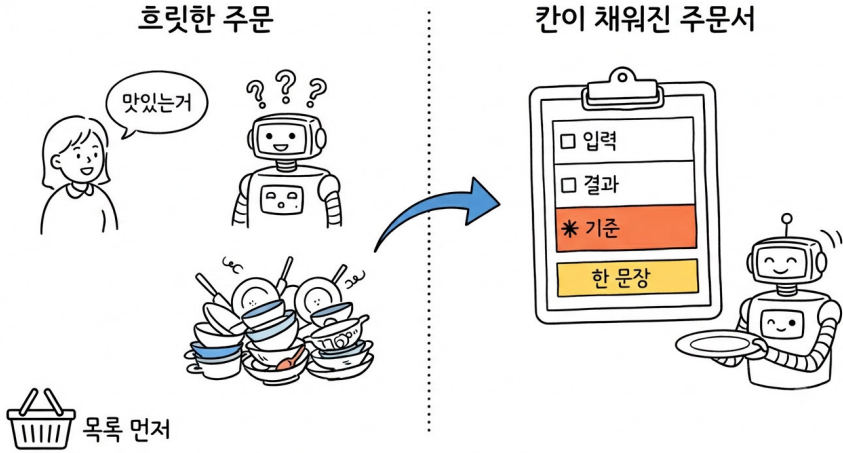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주세요"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먹고 싶던 건지는 운이예요.

"김치찌개 2인분, 덜 맵게, 7시까지 포장이요." 이렇게 말하면 주방이 헤맬 일이 없습니다.

도운 씨의 "쇼츠 대본 자동화하고 싶어"가 "맛있는 거 주세요"였어요. Claude가 성실하게 이것저것 차려 낸 것도 그래서입니다.

주문서에는 칸이 딱 세 개면 됩니다.

칸	물어볼 것	도운 씨의 답
입력	내가 뭘 주면	주제 한 줄
결과	뭘 받고 싶나	40초짜리 쇼츠 대본
기준	뭐가 맞으면 합격인가	채널 말투, 첫 3초 규칙



왼쪽에서는 "맛있는 거"라는 말 한마디에 로봇이 물음표를 띄우고, 그릇만 잔뜩 쌓입니다. 오른쪽에서는 입력·결과·기준 칸이 채워진 주문서를 들고 접시 하나를 정확히 내옵니다.

셋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준**입니다.

입력과 결과는 다들 잘 적는데, 기준은 "좋은 대본"이라고만 쓰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도구를 골라 놓고도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 칸이 Day 4에서 그대로 **채점표**가 됩니다.

도구를 찾기 전에 주문서부터 쓰는 이유

주문서 없이 스킬 목록을 구경하면 **멋져 보이는 것**을 깔게 돼요. 그러다 뭐가 켜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도운 씨가 지금 그렇죠.

문제를 먼저 쓰고, 도구는 그다음에 찾습니다.

매번 붙여넣던 그 긴 글

주문서를 쓰다 보면 하나가 더 보입니다. 도운 씨가 메모장에서 매번 복사하던 채널 소개예요.

그 글은 사실 **기준의 재료**입니다. 누가 보는지, 어떤 말투인지, 첫 3초에 뭘 하는지가 다 들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글을 파일 하나로 정리해 둡니다.

④ 따라 하기

1단계 주문서 양식 열기

실습 자료의 `문제정의_주문서.txt`를 메모장으로 엽니다. 입력, 결과, 기준 세 칸과 "한 문장" 칸이 있어요.

2단계 Claude에게 주문을 받게 하기

이번에도 Claude에게 **질문을 해 달라고** 합니다. 새 대화를 열고 아래 ⑤의 **(1) 주문 받기** 지시문을 넣으세요. 대괄호 [] 안에는 어제 고른 후보를 적습니다.

그림 2-1 주문 받기

입력 · 결과 · 기준을 차례로 묻습니다



Claude

입력

1/3 — 입력. 쇼츠 대본을 쓰기 시작할 때
손에 무엇이 있어야 쓸 수 있나요?

나

주제 한 줄이요. '자취방 곰팡이' 이런 식으로요.

Claude

결과

2/3 — 결과. 그 주제 한 줄을 넣으면
무엇이 나와야 하나요?

나

40초짜리 쇼츠 대본이요. 화면과 대사가 나뉘어 있으면 좋겠어요.

Claude

기준

3/3 — 기준. 어떤 대본은 합격이고,
어떤 대본은 불합격인가요?

나

첫 3초가 질문으로 시작 안 하면 다시요.
말투가 뉴스처럼 딱딱해도 다시요.

Claude

되물기

같은 내용을 세 가지로 써 봤는데, 어느 쪽이 합격인가요?

① 존댓말 ② 반말 ③ 반말과 존댓말 섞기

"1/3 — 입력"처럼 번호를 달고 하나씩 묻습니다. 답이 모호하면 예문을 보여 주며 다시 물어요.

기존 질문에서 막히면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이런 대본이 오면 다시 쓰라고 할 것 같다"** 싶은 순간이요. 그 반대가 기준입니다.

제 경우 "말투가 뉴스처럼 딱딱하면 다시"라고 답했더니, 같은 문장을 존댓말·반말·들을 섞은 말로 써 보이며 "어느 쪽이 합격인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장면도 "장소만 / 장소와 시간대 / 시간대에 행동까지" 중에 고르게 했고요. 그렇게 기준 네 개가 전부 **예·아니오로 판정할 수 있는 문장**이 됐습니다.

3단계 한 문장으로 줄이기

아래 ⑤의 **(2) 한 문장 만들기** 지시문을 넣습니다. Claude가 준 문장은 조금 길었어요.

"주제 한 줄만 주면, 장면마다 [화면]과 [대사]가 나뉘는 40초 쇼츠 대본이, 첫 3초는 질문으로 열고 친구에게 말하듯 쓰는 기준에 맞게 나오게 한다."

도운 씨는 이걸 한 번 더 줄여 적었습니다.

"주제 한 줄만 주면, 40초짜리 쇼츠 대본이, 우리 채널 말투와 첫 3초 규칙에 맞게 나오게 한다."

남은 기준 두 개, 원룸 장면과 근거 없는 숫자는 주문서의 "한 문장에 못 넣은 기준" 칸에 따로 적어 둡니다.

이 문장을 주문서의 "한 문장" 칸에 붙여 넣습니다. 내일 이 문장을 들고 스킬을 고릅니다.

4단계 채널 소개를 파일로 정리하기

매번 붙여넣던 설명을 Claude에게 보여 주고 아래 ⑤의 **(3) 설명 정리** 지시문을 넣습니다.

그림 2-2 채널 소개 정리 결과

흠어진 메모가 네 칸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보나

30대 자취생, 자취 5년 차쯤
대충 하지만 망하긴 싫은 사람들 · 퇴근길 지하철에서 세로로

말투

친구한테 말하듯이
전문 용어는 쓰면 바로 쉽게 풀어 줘

구성 규칙

첫 3초엔 질문 · 40초 안 · 해결법은 하나만
마지막엔 "저장해 두고 이번 주말에 해 봐"

하지 않는 것

근거 없는 숫자 · 제품 광고 · 겁주기 · "여러분"

앞에서 정한 '원룸 + 시간대', '[화면]/[대사] 나뉘 쓰기'가 빠졌다면
구성 규칙에 추가할지 되물습니다.

흠어진 메모가 누가 보나, 말투, 구성 규칙, 하지 않는 것 네 칸으로 정리됩니다.

제 결과엔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정한 '첫 장면에 원룸과 시간대', '[화면]/[대사] 나뉘 쓰기'가 이 설명에는 없습니다. 구성 규칙에 추가할까요?" 주문서에서 정한 기준을 채널 소개에도 옮겨 두라는 거죠. 이 한 줄은 기억해 두세요. 2주차에 그대로 쓸 일이 옵니다.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1 답변 내용을 마우스로 끌어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 2 메모장을 새로 엽니다. 윈도우는 시작 버튼을 누르고 "메모장", 맥은 스포트라이트(메뉴 막대 오른쪽 위 돋보기)에서 "텍스트 편집기"를 찾으면 됩니다.
- 3 붙여넣고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을 누릅니다.
- 4 실습 자료의 Day02_주문서쓰기 폴더에 혼살30초_채널소개.txt 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름 끝의 .txt 까지 그대로 적어 주세요.

자기 채널이 없다면 실습 자료에 있는 도운 씨 버전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 이 파일은 아직 스킬이 아닙니다. 그냥 잘 정리된 메모예요. 이게 레시피 카드가 되는 건 Day 8입니다.

⑤ 복사해서 쓰는 지시문

! 아래 지시문은 Day02_지시문.txt 파일에도 들어 있습니다. 파일에서 복사하면 줄이 깨지지 않아요.

(1) 주문 받기

제가 자동화하고 싶은 일은 [쇼츠 대본 쓰기]입니다.

이 일을 "입력 → 결과 → 기준" 세 칸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질문 하나씩, 세 칸을 차례로 물어봐 주세요.

기준을 물을 때는 "합격과 불합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제 답이 모호하면 예시를 들어 다시 물어봐 주세요.

(2) 한 문장 만들기

지금까지의 답을 한 문장으로 줄여 주세요.

형식: "[입력]만 주면, [결과]가, [기준]에 맞게 나오게 한다."

기준은 두 개까지만 남겨 주세요. 나머지는 아래에 따로 적어 주세요.

(3) 설명 정리

아래는 제가 시에게 매번 붙여넣던 설명입니다.

이것을 다시 쓰기 좋게 정리해 주세요.

칸은 네 개입니다: 누가 보나 / 말투 / 구성 규칙 / 하지 않는 것

제가 쓴 표현은 되도록 그대로 살려 주세요.

빠진 칸이 있으면 비워 두고, 제게 물어볼 질문을 한 줄 적어 주세요.

[여기에 붙여넣던 설명을 넣으세요]

⑥ 오늘의 응용

김만석 씨의 경우 — 10년 차 식당 사장님

김만석 씨의 주문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수증 사진만 주면, 매입·매출 정리표가, 세무사님께 드리는 양식에 맞게 나오게 한다."

기준 칸에는 한 줄이 더 붙었습니다. **"금액은 절대 추정하지 않는다."** 흐린 영수증이 있으면 "확인 필요"라고 적으라는 뜻이에요. 돈이 걸린 일이라 여기서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만석 씨에게도 매번 붙여넣던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출을 어느 칸에 넣는지 적어 둔 메모요. 그게 오늘 파일로 정리됐습니다.

안 될 때

증상	원인	해결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기준을 전부 넣음	기준은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래로
기준이 "좋은 대본"처럼 흐릿해요	합격·불합격 장면을 안 떠올림	"다시 쓰라고 할 것 같은 대본"을 먼저 적고 뒤집기
채널 소개 정리가 원래 글과 뒀판이에요	Claude가 표현을 다듬음	"제 표현을 그대로 살려 주세요"를 강조해 다시 요청

오늘의 실습 자료

Day02_주문서쓰기

└─ 문제정의_주문서.txt

└─ 혼살30초_채널소개.txt

└─ Day02_지시문.t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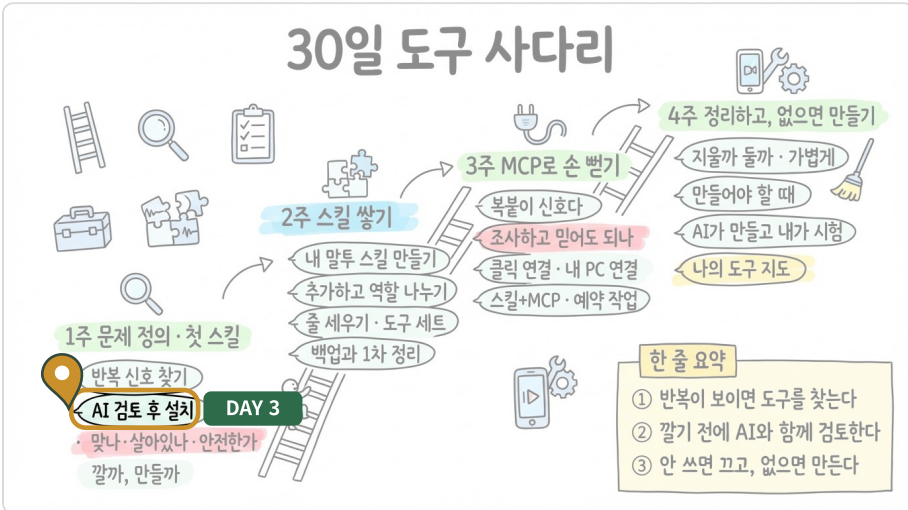
주문서가 생겼고, 매번 붙여넣던 긴 글이 파일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이제 주문서를 들고 장을 보러 갑니다. 내일은 드디어 첫 스킬을 들입니다. 물론 들이기 전에 맛부터 보고요.

DAY 3

첫 스킬 — 깔기 전에 AI에게 먼저 맛보게 하기

지도에서 보면 지금은 1주의 두 번째 칸, "AI 검토 후 설치"입니다. 사다리 첫 칸에서 드디어 발을 떼는 날이에요.



① 오늘의 상황

밤 10시 12분. 도운 씨가 노트북을 엽니다. 오늘 올릴 쇼츠 주제는 "자취방 곰팡이, 락스 말고 이걸로"입니다.

대본을 부탁하려고 Claude 창을 엽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메모장에서 긴 글을 복사해 오죠.

"내 채널은 혼살 30초고, 30대 자취생이 보고, 말투는 친구한테 말하듯이, 첫 3초엔 질문을 던지고, 40초 안에 끝내고..."

붙여넣기. 엔터. 그리고 짧은 한숨.

"...이거 몇 번째더라."

어제 적어 둔 문장이 떠오릅니다.

"주제 한 줄만 주면, 40초짜리 쇼츠 대본이, 우리 채널 말투와 첫 3초 규칙에 맞게 나오게 한다."

문제는 어제 정의했습니다. 이제 도구를 찾을 차례예요.

② 오늘의 미션

쇼츠 대본용 스킬 후보 세 개를 AI에게 먼저 검토시키고, 합격한 하나를 설치해 대본 한 편을 뽑는다.

③ 개념 먼저 — 스킬은 레시피 카드입니다

스킬이 뭐냐면요. 주방 얘기부터 해 볼게요.

당신 가게에 손 빠른 주방 보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칼질도 빠르고, 불 조절도 잘해요.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게 레시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입으로 불러 줍니다. "김치찌개는 멸치 육수, 두부는 마지막에, 간은 싱겁게." 내일도 불러 줍니다. 모레도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방금 도운 씨가 메모장에서 채널 소개를 복사하던 그 장면입니다.

스킬은 이 레시피를 **카드로 적어 꽃이에 꽂아 두는 일**입니다. 한 번 꽂아 두면 다시 불러 줄 필요가 없어요.

카드꽃이의 비밀

여기서 재미있는 건 보조가 카드를 읽는 방식이에요.

보조는 꽃이에 꽂힌 카드를 전부 읽지 않습니다. **제목만 훑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쇼츠 첫 3초". 그러다 주문이 들어오면 맞는 카드 한 장을 뽑아 그때 펼칩니다.

Claude도 실제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Claude를 만든 회사인 Anthropic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평소엔 스킬의 이름과 설명만 올려 둡니다. 스킬 하나에 약 100토큰이에요. 본문은 그 스킬이 필요할 때만 읽습니다.

 **토큰**은 AI가 글을 읽는 단위입니다. 100토큰이면 짧은 문단 하나 정도예요.

그러니까 카드 제목, 즉 **스킬 설명이 잘 쓰여 있어야 제때 뽑힙니다.** 이건 Day 10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이 카드, 어디서 구하냐면요

레시피를 구하는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어디서	주방으로 치면	특징
Claude 안의 디렉터리 (사용자 지정 → 스킬)	백화점 식품관	골라 담기 쉽지만, 틈새 메뉴는 없을 수 있음
Anthropic 공식 저장소	본사 레시피북	문서·디자인 같은 범용 메뉴 중심
GitHub 커뮤니티	동네 맛집이 써 붙인 레시피	틈새 메뉴가 많고, 품질은 제각각

! **GitHub**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든 파일을 공개해 두는 창고 같은 사이트입니다. 그 안의 폴더 한 칸을 **저장소**라고 불러요. 가입하지 않아도 구경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대 자취생용 40초 쇼츠" 같은 틈새 메뉴는 식품관, 곧 Claude 앱 안의 스킬 목록(디렉터리)에 잘 없어요. 그런 건 대개 동네 맛집, 그러니까 GitHub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식 저장소의 안내문에는 이 스킬들이 "시연과 교육 목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의 레시피를 들이기 전에 뭘 하나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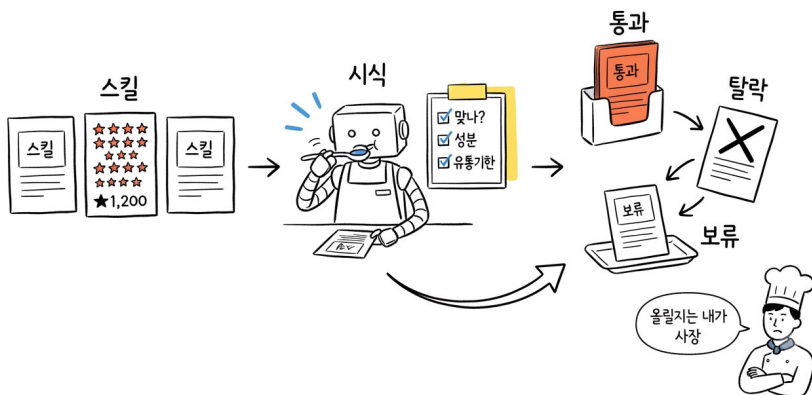
맛을 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스킬은 맛보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대부분 영어로 쓰여 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눈에 안 보이거든요.

"에이, 별(스타) 많은 거 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하죠. 별은 GitHub에서 "좋아요"처럼 누르는 표시예요. 그런데 별이 많다는 건 "유명한 식당"이라는 뜻이지, "**우리 메뉴**"라는 뜻은 아니예요.

공식 문서의 권고는 이렇습니다. 직접 만들었거나 Anthropic에서 받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스킬만 쓰라**. 모르는 출처라면 쓰기 전에 꼼꼼히 검토하라. "쓰지 마라"가 아니라 "검토하고 써라"예요.



별이 잔뜩 붙은 스킬도 한 장의 후보일 뿐입니다. 로봇이 맞나, 성분,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맛을 보고, 통과와 보류와 탈락으로 나눕니다. 옆에서 주방장이 팔짱을 낀 채 한마디 합니다. "올릴지는 내가 사장."

여기서 AI를 **시식 담당**으로 씁니다. 긴 영어 설명서는 AI가 대신 읽고, 이 세 가지를 짚어 줍니다.

오늘 던질 질문	주방으로 치면
내 일에 맞나?	우리 메뉴에 들어갈 요리인가
안에 코드나 외부 연결이 있나?	성분표에 모르는 재료가 있나
최근에 손봤나, 계속 관리되나?	유통기한은 괜찮나

하나씩 깊게 파는 건 Day 4부터 6까지의 몫이에요. 그리고 **맛은 AI가 봐도, 메뉴에 올릴지는 사장인 당신이 정합니다.**

④ 따라 하기

오늘 따라 하기는 **최신 Claude 앱(데스크톱·웹) 한국어 화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렵게 가지 않아요. 설정 한 번 켜고, 나머지는 **프롬프트로 물어보고 시키는 방식**으로 갑니다. 프롬프트는 AI에게 넣는 요청 글로, 이 책의 지시문이 바로 프롬프트예요.

1단계 스킬 기능 켜기

설정 → **기능**으로 갑니다. "코드 실행 및 파일 생성" 칸의 **클라우드 코드 실행 및 파일 생성**을 켵니다. 스킬은 이 기능이 켜져 있어야 작동합니다. 설명에도 "스킬 사용에 필요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림 3-1 설정 → 기능에서 "클라우드 코드 실행 및 파일 생성"을 켵니다. 이미 켜져 있으면 그대로 두세요.

❗ 메뉴 이름은 업데이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다면 **글자로 찾아주세요**. 영어 화면이라면 Settings → Capabilities → Code execution and file creation입니다.

2단계 디렉터리 한 번 훑어보기

왼쪽 사이드바의 **사용자 지정** → **스킬**로 들어가 **탐색** 탭을 누릅니다. 검색창에 **YouTube**, **쇼츠**, **script**를 넣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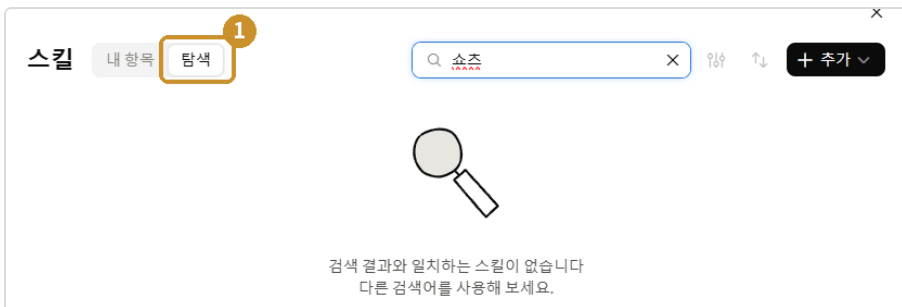


그림 3-2 탐색 탭에서 쇼츠로 찾은 화면. 일치하는 스킬이 없다고 나옵니다.

딱 맞는 게 있으면 **추가**를 누르고 6단계로 건너뛰니다. 없으면 정상이에요.

YouTube로 찾으면 수십 개가 나오지만, 대부분 자막 추출이나 게시 예약 도구입니다. 쇼츠 대본을 쓰는 스킬은 없어요.

3단계 후보 목록 준비하기

후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모읍니다.

첫 번째는 책이 준비한 목록을 쓰는 방법입니다. 실습 자료 **후보스킬_3종.txt**에 세 개가 들어 있어요.

후보	한 줄 소개	눈여겨볼 점
A. youtube-skills의 Hook Scriptor	쇼츠 첫 3초 대본	정식 버전 28개, 수정 기록 45회. 저장소에 업로드 연동 도구도 함께 있음
B. youtube-agent-skill의 yt-script	훅 공식 21가지와 점수	수정 기록 1회. 파이썬 채점 프로그램 사용
C. pm-claude-skills의 youtube-script-writer	유튜브 대본 전반	스타 약 1,400개. 5~15분 영상 기준

A는 쇼츠 첫 3초 전문이지만, 같은 저장소에 업로드를 외부 서비스와 잇는 도구가 함께 있어요. B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씁니다. 파이썬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예요. 글만 든 카드보다 확인할 게 많다는 뜻입니다. C는 셋 중 가장 유명하지만, 5~15분짜리 일반 영상용입니다.

두 번째는 Claude에게 직접 찾아 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⑤의 **(1) 후보 찾기** 지시문을 쓰면 됩니다. Claude가 웹 페이지를 가져오겠다고 물으면 **한 번 허용** 을 누르세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이름과 주소가 적힌 후보 목록**이 손에 들어오면 돼요.

! 표의 정보는 2026년 9월 확인 기준입니다. 당신이 볼 때는 숫자와 날짜가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검토법은 그대로 통합니다.

4단계 프롬프트로 물어보기 — "나한테는 뭐가 맞아?"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후보 목록을 들고 Claude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 중에 나한테 쓸모 있는 건 뭐야? 이유는?"**

이게 왜 잘 먹히냐면요. 스킬 설명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스킬인지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내 상황**을 붙입니다. 상황 없이 물으면 Claude도 "요즘 잘나가는 것"밖에 꺼낼 게 없어요.

새 대화를 열고 아래 ⑤의 **(2) 판단 요청** 지시문을 넣습니다.

그림 3-3 판단 요청 답변

세 저장소를 직접 받아 읽고 나온 답 (요약)



후보	판정	걸리는 점
A. Hook Scripter	추천	첫 3초 흑만 썸 · 업로드 연동 도구가 함께 들어 있음
B. yt-script	비추천	긴 영상용 · 채점 프로그램이 한국어 혹은 25점
C. script-writer	비추천	5~15분 긴 영상용 · 스킵 자체는 거의 손대지 않음

하지만 고른다면 A. 쇼츠 첫 3초와 루프 대사를 전용으로 다루고, 대본을 쓰는 데는 코드나 API 키가 필요 없습니다.

후보마다 판정과 걸리는 점이 붙습니다. 실제 답변을 줄여 옮겼어요.

답이 오면 두 곳만 보세요. **추천 이유**와 **걸리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을 때 Claude는 세 저장소를 내려받아 읽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 C는 비추천입니다. 유명하지만 5~15분짜리 긴 영상용이에요. 우리 메뉴가 아닙니다.
- B도 비추천입니다. 긴 영상용인 데다, 안에 든 채점 프로그램이 영어 단어로만 점수를 매깁니다. Claude가 한국어 혹은 직접 넣어 봤더니 100점 만점에 25점이 나왔어요. 이런 속사정은 Day 6에서 성분표를 읽을 때 다시 봅니다.
- A는 추천입니다. 단, **저장소 전체가 아니라 Hook Scripter 하나만** 들입니다.

스타 1,400개짜리가 제일 먼저 떨어졌죠.

답 끝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셋 다 딱 맞지는 않으니, 직접 만드는 편이 낫다." C 저장소 안에서 쇼츠 전용 스킴을 따로 찾아내 알려 주기도 했고요. 깔까, 만들까. 이 질문은 Day 7에서 제대로 다룹니다. 오늘은 A 하나로 끝까지 가 봅니다.

Claude의 답이 제 결론과 다르면요? 그대로 따르지 말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아래 ⑤의 **(3) 되묻기** 지시문이 있습니다.

! Claude의 답은 문장이 매번 다릅니다. 판단 기준은 **어떤 후보가 떨어지고 왜 떨어졌는지**가 비슷한가입니다.

5단계 설치도 프롬프트로 — "그거 설치해 줘"

고르는 것까지 말로 했으니, 설치도 말로 시켜 봅니다. 같은 대화에서 아래 ⑤의 **(4) 설치 요청** 지시문을 넣으세요.

Claude가 원본을 읽고 스킴 파일을 만들어, 대화창에 **스킴 저장** 카드로 보여 줍니다. 카드의 **저장** 을 누르면 내 스킴 목록에 들어갑니다. 저장되는 이름은 `yt-hook-scripter` 예요.

눈여겨볼 건 카드 아래 답입니다. 원본에 든 링크 분석용 파이썬 파일과 유튜브 업로드 연결을 먼저 알려 주고, 설치본에서는 둘 다 뺐다고 합니다. 지시문에 "코드나 외부 연결이 있으면 먼저 알려 달라"고 적어 둔 덕분이예요.

그림 3-4 설치 요청과 스킬 저장 카드

원본에서 코드와 외부 연결을 빼고 만들어 줍니다



나

추천한 A의 Hook Scripter 하나만 설치하고 싶습니다.
다른 스킬과 업로드 연동 도구는 넣지 말아 주세요.

스킬 저장

/yt-hook-scripter

Script the spoken opening of a YouTube video: the first 30 seconds of a long-form video or the first 3 seconds of a Short, with a designed loop.

콘텐츠 · 229줄

닫기

저장

Claude

원본에는 링크를 분석하는 파이썬 파일과,
Publora로 유튜브에 올리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설치본에서는 둘 다 뺐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추가됩니다.

설치를 요청하면 스킬 저장 카드가 뜹니다. 저장을 누르면 내 스킬 목록에 들어가요.

왜 "Hook Scripter만"이라고 꼭 집어 말하냐면요. 레시피 카드 한 장이 필요한데, **거래처 출입 열쇠까지 딸린 상자**를 통째로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업로드 연동 도구는 우리 가게 밖으로 문을 여는 물건입니다. 그런 문은 3주차에 제대로 따져 보고 냅니다.

말로 안 될 때는 직접 올리기

카드가 안 뜨거나 저장이 안 되면 손으로 올리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1 A 저장소 페이지에서 초록색 **Code** 버튼 → **Download ZIP** 을 누릅니다. 내려받기 폴더에 압축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 2 그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압축 풀기** (맥은 두 번 누르면 풀립니다)를 고릅니다.
- 3 풀린 폴더를 열고, 그 안의 **skills** 폴더로 들어갑니다. 이름에 hook이 들어간 폴더를 찾으세요. 안에 **SKILL.md** 파일이 있으면 그 폴더가 맞습니다. SKILL.md가 레시피 카드 본문이 적힌 파일이에요.
- 4 그 폴더 하나만 골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 **압축(ZIP) 파일로 만들기** (맥은 "압축")를 누릅니다. 새 압축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 5 Claude에서 **사용자 지정** → **스킬** 으로 가서 **+ 추가** → **스킬 업로드** 를 누르고, 방금 만든 압축 파일을 고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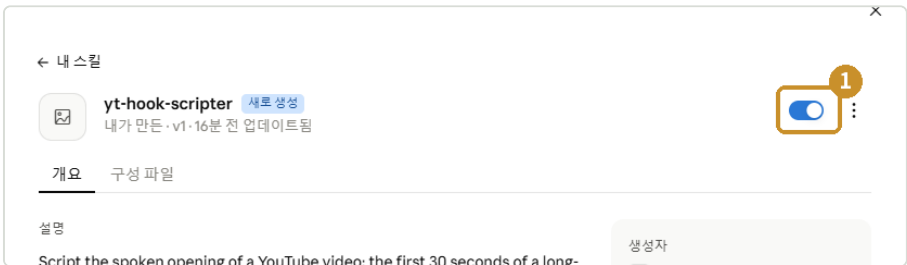


그림 3-5 내 항목의 "내가 만들"에 이름이 보이고, 눌러 들어간 화면의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성공입니다. 말로 설치했던 손으로 올렸든 같아요.

! 저장소 안내문(README)에는 다른 설치 방법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Claude 공식 도움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6단계 첫 대본 뽑기

새 대화를 열고, 실습 자료의 **혼살30초_채널소개.txt** 를 첨부합니다. 첨부하는 대화창의 클립(📎) 버튼을 누르거나, 파일을 대화창으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⑤의 (5) 첫 대본 지시문을 넣습니다.

그림 3-6 첫 대본 결과

주제: 자취방 곰팡이 · 약 40초 (답변 요약)



시간	화면	대사
0-3초	창틀 곰팡이 클로즈업	락스 냄새 싫어서 곰팡이 그냥 두고 있지?
3-8초	창문 하나뿐인 원룸	원룸에서 락스 쓰면 방 전체가 수영장 냄새 되잖아.
8-14초	소독용 에탄올 → 분무기	대신 이거.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에탄올.
14-22초	환기 → 흠뻑 뿌리기	창문 열고 흠뻑 뿌려. 10분 정도 그냥 뒀.
22-30초	키친타월로 닦기	닦아 내면 끝. 닦은 휴지는 바로 버리고.
30-36초	불 근처 X 표시	알코올이라 불 근처에선 쓰지 마.
36-40초	깨끗해진 창틀	저장해 두고, 이번 주말에 창틀부터 해 봐.

답변 맨 위에 '스킬 불러옴'이 뜹니다. 혹은 세 버전 중 공감형 B를 골랐고, 마지막 컷을 첫 컷과 같은 각도로 찍어 반복 재생을 노리라고 덧붙입니다.

시간·화면·대사로 나뉜 40초 대본입니다. 답변 맨 위에 "스킬 불러옴"이 떠오. 실제 답변을 줄여 옮겼습니다.

Hook Scripter는 **첫 3초 전문**입니다. 혹 세 버전은 지시문대로 나왔고, "마지막 컷을 첫 컷과 같은 각도로 찍으면 반복 재생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인 건 스킬 몫이에요. 나머지 37초는 Claude가 채널 소개를 보고 채웠습니다. 참고로 이 스킬은 안의 규칙과 예시가 영어라, 말투가 번역한 문장처럼 딱딱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투를 카드에 입히는 건 Day 8의 일이에요. 스킬은 만능

요리사가 아니라 **한 메뉴 전문 카드**입니다. 카드를 여러 장 모아 코스를 짜는 건 2주차의 일이에요.

❗ **ChatGPT나 Gemini를 쓴다면 — 참고만 하세요** ChatGPT에도 스킬이 있습니다. 사이드바의 플러그인 → 스킬에서 관리하지만, 2026년 9월 기준 공식 도움말은 Business·Enterprise·Edu 같은 업무용 요금제 중심으로 안내해요. Gemini 앱에는 같은 이름의 스킬 기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발자용 명령줄 도구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의 **판단 프롬프트**는 어느 AI에 넣어도 그대로 통합니다.

⑤ 복사해서 쓰는 지시문

❗ 아래 지시문은 [Day03_지시문.txt](#) 파일에도 들어 있습니다. 파일에서 복사하면 줄이 깨지지 않아요.

(1) 후보 찾기 — 목록이 없을 때만

Claude 스킬(SKILL.md 형식)을 찾고 있습니다. 웹에서 찾아 주세요.

[지금 하는 일] 유튜브 쇼츠 채널 운영. 주제 한 줄로 40초 대본을 뽑고 싶습니다.

[조건] 쇼츠(3분 이하 세로 영상)용일 것. 코딩을 몰라도 쓸 수 있을 것.

후보 3~5개를 "이름 / 주소 / 한 줄 소개" 표로 주세요.

찾지 못한 항목은 지어내지 말고 비워 두세요.

(2) 판단 요청 — 나한테 맞는 건 뭐야? 이유는?

저는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쇼츠 채널 '혼살 30초' 운영 (30대 자취생 대상 생활정보)
- 주제 한 줄로 40초 대본을 뽑고 싶음. 첫 3초 hook이 제일 고민

- 코딩은 못 함

아래 후보 스킬 중에서 제게 적용하면 유용한 스킬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요?
각 저장소를 직접 읽고 답해 주세요.

[후보]

A: <https://github.com/sergebulaev/youtube-skills> (Hook Scripter)

B: <https://github.com/Jakeschincariol/youtube-agent-skill> (yt-script)

C: <https://github.com/mohitagw15856/pm-claude-skills> (youtube-script-write
r)

[답하는 방법]

후보별로 "추천 여부 / 추천 이유 / 걸리는 점"을 표로 정리해 주세요.

걸리는 점에는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1. 쇼츠용인가, 긴 영상용인가
 2. 안에 코드나 외부 서비스 연결이 있는가
 3. 마지막으로 손본 날짜, 그리고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 확인하지 못한 것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못 함"이라고 적어 주세요.
마지막에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인지, 이유를 세 줄로 알려 주세요.
셋 다 맞지 않는다면, 직접 만드는 편이 나은지도 함께 판단해 주세요.

(3) 되묻기 — 답이 미심쩍을 때

방금 추천한 스킬을 제 상황에 쓰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세 가지만 꼽아 주세요.
그리고 추천에서 뺀 후보 중 다시 볼 만한 것이 있다면 이유와 함께 알려 주세요.

(4) 설치 요청 — 그거 설치해 줘

추천한 A 저장소의 Hook Scripter 스킬 하나만 제 스킬로 설치하고 싶습니다.
저장소의 다른 스킬과 업로드 연동 도구는 넣지 말아 주세요.

1. 설치 전에 SKILL.md가 무엇을 하는지 세 줄로 요약해 주세요.
2. 코드 실행이나 외부 연결이 들어 있으면 먼저 알려 주세요.
3. 문제가 없으면 스킬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저장 버튼으로 추가하겠습니다.

(5) 첫 대본

첨부한 채널 소개를 참고해서 쇼츠 대본을 써 주세요.

주제: 자취방 곰팡이, 락스 말고 이걸로

길이: 40초 안팎 (말하는 속도 기준)

구성: 첫 3초 혹은 세 가지 버전으로 먼저 보여 주고,

그중 하나를 골라 전체 대본을 완성해 주세요.

형식: [화면] / [대사] 두 칸 표

⑥ 오늘의 응용

윤채원 씨의 경우 — 1인 창업 디자이너

윤채원 씨는 "고객 피드백 정리" 스킬을 찾았습니다. 같은 지시문에 자기 상황만 바꿔 넣었어요.

"고객이 보낸 메일에서 수정 요청만 뽑아 목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디자인 도구는 씁니다만 코딩은 못 합니다."

후보 세 개가 나왔는데, 검토 결과는 셋 다 애매했습니다. 두 개는 영어권 마케팅 회사용이라 용어가 안 맞았고, 하나는 고객 관리 프로그램과 연결해야 썼어요.

후보가 다 안 맞는 것도 정보입니다. 윤채원 씨는 그 결과를 들고 Day 7의 "깎까, 만들까"로 갑니다.

안 될 때

증상	원인	해결
스킬 메뉴가 안 보여요	1단계 기능이 꺼져 있음	설정 → 기능에서 "코드 실행 및 파일 생성" 다시 확인
Claude가 저장소를 못 읽는대요	웹 페이지 가져오기를 거부함	다시 요청하고, "웹 페이지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창에서 한 번 허용
설치해 달랬는데 카드가 안 떠오	저장소 파일을 못 가져왔거나 파일 생성이 막힘	"직접 올리기" 순서로 설치
저장을 눌러도 목록에 없어요	저장이 반영되지 않음	사용자 지정 → 스킬을 새로 고침. 그래도 없으면 직접 올리기
업로드하면 오류가 나요	ZIP 안에 폴더가 한 겹 더 있음	ZIP을 열었을 때 바로 SKILL.md가 든 폴더가 보이게 다시 압축
대본에 스킬이 안 쓰인 것 같아요	요청이 스킬 설명과 안 맞음	지시문에 "첫 3초 후"이라는 말을 넣어 다시 요청
추천 결과가 책과 달라요	저장소가 그사이 바뀜	정상입니다. (3)번으로 되묻고, 세 질문 기준으로 당신이 판정

오늘의 실습 자료

Day03_첫스킬

└─ 후보스킬_3종.txt

└─ 혼살30초_채널소개.txt

└─ Day03_지시문.txt

오늘 도운 씨는 대본을 한 줄도 직접 쓰지 않았습시다. 채널 소개를 붙여넣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하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 대본, 스킴이 잘 쓴 걸까요? 채널 소개 파일이 잘 쓴 걸까요?

내일은 그걸 가립니다. 이 스킴이 진짜 내 일에 맞는지 채점해 볼 거예요.

여기까지가 무료 샘플입니다

Day 3에서 첫 스킬을 들였고, 대본 한 편을 뽑았습니다. 들이기 전에 AI에게 먼저 맛보게 하고요.

그런데 Day 3 끝에 남은 질문이 있었죠. **이 대본, 스킬이 잘 쓴 걸까요? 채널 소개 파일이 잘 쓴 걸까요?** 정식판은 그 질문에서 이어집니다.

부	이 부가 끝나면
1부 (Day 4~7)	스킬이 내 일에 맞는지 채점하고, 날짜와 성분표를 읽고, 깔지 만들지 스스로 정합니다
2부 (Day 8~14)	내 말투 카드를 직접 만들고, 여러 장을 역할 나눠 한 번에 씁니다
3부 (Day 15~21)	한 편을 네 곳에 올리는 일을 MCP로 잇고, 알아서 도는 예약 작업을 만듭니다
4부 (Day 22~30)	안 쓰는 도구를 정리하고, 없는 도구는 AI에게 만들게 해 직접 검수합니다

정식판에는 30일 전체와 **부록: 지시문 모음**이 들어 있습니다. PDF 332쪽(표지 포함), 실습 파일 107개입니다.

! 도구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도 **고르는 눈**은 남습니다. 남은 27일에서 그 눈을 마저 기릅니다.